

중국의 WTO 가입 후 변화된 중국시장 환경에서의 한국 주요 산업별 대응방안 고찰

최용정 · 신용하

경기대학교 첨단산업공학부

A review on the Countermeasure of Korean Main Industries in changed Chinese Market after the Accession to WTO

Yong Jung Choi · Yong Ha Shin

Division of Advanced Industrial Engineering

With agreement from the US, EU, and other countries, China joined in WTO(World Trade Organization) on December 1, 2001. So it is expected that Korea will not expand bilateral trade but also face severe competition with China for world and Chinese market. After Chinese accession to WTO, the aspect of Korean companies may be considered to be reduced the aspect of opportunity and risk by half. Accordingly, Korean domestic companies have to search countermeasures optimized to get global competition by considering the aspect of opportunity and risk. Therefore,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review the potential possibility of China as a world market and to provide countermeasures for major Korean domestic industries.

Keywords : WTO, China, Industry

1. 서 론

중국의 WTO 가입이 우리 나라에 기회와 위기이라는 양면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되는 이 시점에서 기회측면으로는 대중 수출 증대, 우리기업의 대중국 진출 확대, 무역분쟁에 있어서 분쟁해결 절차에 따른 해결, 한국의 전반적인 대외교역환경 개선에 기여함이라 할 수 있고, 위기측면으로는 중국시장에서 중국 및 선진국과의 경쟁격화, 중국기업의 국제경쟁력 강화로 제3국 시장에서 한·중 경합 심화, 2001년 2월 영국의 컨설팅 업체인 A.T. Kearney사가 세계 1,000대 기업의 최고경영자를 대상으로 향후 3년간 외국인 직접투자 유망국에 대해 조사한 결과 중국이 2~3위를 유지할 것으로 전망함에 따라 우리 나라에 대한 외국인직접투자 위축 등으로 분류할 수 있다[13].

중국의 세계무역기구(WTO) 가입은 13억에 가까운 인구를 가진 중국의 정치, 경제적 위상 강화와 세계경제, 시장경제 체제로의 편입과 경제적 이익의 제고를 의미하고 국내 경제와 무역 체제를 국제 수준에 맞추어야 하므로 중국이 그간 추진해온 개혁, 개방을 가속화, 심화하는 결과를 초래할 것이다. 무역, 투자 장벽 완화는 중국시장의 재분할, 내륙지방으로의 개발효과 확산을 의미하며, 제10차 5개년 계획(2001-2005년)과 서부대개발과 맞물려 상승효과(synergy effect)를 나타낼 것으로 관측되고 있다.

중국전문가들은 한·중간에 교역과 투자와 경제협력 이 늘어나는 과정에서 통상과 투자 분류, 무역수지적자 문제, 의존도 심화 등 많은 문제들이 발생할 가능성이 있다고 경고하고, 한국이 장기적인 관점에서 중국의 WTO 가입후의 추세를 예의주시하며 정책과 대책들을 수립해 나가야 할 것이라고 조언했다.

이와 같은 배경 하에 본 연구에서는 WTO에 가입한 중국의 변화로 인한 국내 주요 산업들의 기회와 위기에 대해서 살펴보고 이에 대한 대응방안을 강구하고자 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2. 본 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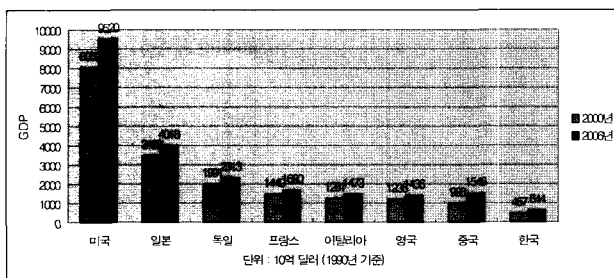
2.1 중국의 경제전망

중국사회과학원에서 중국에 대한 향후 중국의 미래를 시기별로 3단계(단계Ⅰ : 2000~2010년, 단계Ⅱ : 2011~2030년, 단계Ⅲ : 2031~2050년)로 나누어 전망하고 있다 [4].

단계Ⅰ에서는 중국 경제 구조 및 경제 시스템이 대조정 및 대전환될 것이고, 이로 인해 2010년에 국민 생활 수준은 전면적인 “소강(小康)”상태에 도달하고, 중동부 지구 등 일부지역은 “부유”상태에 도달할 것으로 예측하고 있다. 그리고 중대형 도시와 일부 연해 지구에서는 후기 공업화 및 정보화 사회로의 전환이 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단계Ⅱ에서는 전면적으로 공업화가 완성되고, 대부분의 지역에서 정보화가 실현될 것으로 내다보고 있고, 과학기술부문에서도 전면적으로 당시 국제 선진 수준에 접근이 예상되고, 일부 영역에서는 세계 선진 수준에 도달할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국민 평균 생산 수준은 당시 중진국 수준에 도달할 것이고, 일부 지구 및 대·소도시에서는 생활 수준이 당시 선진국 수준에 도달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단계Ⅲ에서는 2050년의 GDP 규모는 미국에 근접한 세계 제2위에 자리매김하고, 과학기술수준은 국제 선진 수준에 도달할 것이며, 전면적인 정보화 달성 및 생태환경의 대대적인 개선으로 인한 국민 생활 수준이 당시 선진국 중 중위권 수준에 이를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그림 1> 세계 주요국의 GDP 전망

이를 뒷받침해 주듯이, <그림 1>에서는 2006년에 중국이 GDP 규모가 5위로 부상할 것으로 전망하는 것을 보여주고 있고, 1995년에서 2000년까지의 전세계 평균경제성장률이 3.8%이고, 개도국 평균경제성장률이 5.0%인데 반해, 중국은 8.3%의 경제성장률을 기록하고 있다. 중국 경제가 향후 상당기간 동안 고속 성장할 것으로 전망된다.

중국의 관점에서 본 2020년 중국경제는 미국의 경제 규모가 127,412억 달러, 일본은 58,556억 달러, 그 뒤를 이어 중국이 52,206억 달러로 세계 3위를 차지하게 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2.2 한중의 교역상 경합관계 및 보완관계

우리 나라와 중국의 교역에 있어 1998년 기준으로 일국의 수출구조와 무역상대국의 수입구조가 어느 정도 일치하는지를 나타내는 지표인 무역보완지수 및 양국의 수출상품구조가 유사할수록 경쟁가능성이 높다는 가정 하에 특정시장에 대한 수출상품구조의 유사성 정도를 계량화한 것으로서 해외시장에서의 국가간의 상호경쟁의 정도를 측정하는 지표인 수출경합지수를 비교해 본 결과, <표 1>에서와 같이 우리 나라와 중국간의 무역보완지수가 1998년 0.86으로 해마다 무역보완도지수가 높아짐을 볼 수 있다. 이것은 수출구조가 교역상대국의 수입구조와 일치성이 높다는 것을 말한다.

<표 1> 우리 나라와 중국과의 무역보완도지수 추이

무역 보완도지수	1990	1995	1998
	0.58	0.71	0.86

주 : 1995년 이전은 SITC 2단위 (총 90개 품목)기준. 1998년 이후는 HS 2단위 (총 97개 품목)기준임.
 자료 : 윤보일·오호일·박상원, “우리나라와 동아시아 주요국간 수출의 경합 및 보완관계”, 한국은행 조사통계월보 논고, 1998. 11.

<표 2>는 주요 수출시장인 미국 및 일본에서의 우리나라와 중국과의 수출경합도지수를 보여준다.

[표 50] 주요 수출시장에서 중국과의 수출경합도지수 추이

	1994	1997	1998
미국시장	0.39	0.32	0.34
일본시장	0.39	0.35	0.37

자료 : 윤보일·오호일·박상원, “우리나라와 동아시아 주요국간 수출의 경합 및 보완관계”, 한국은행 조사통계월보 논고, 1998. 1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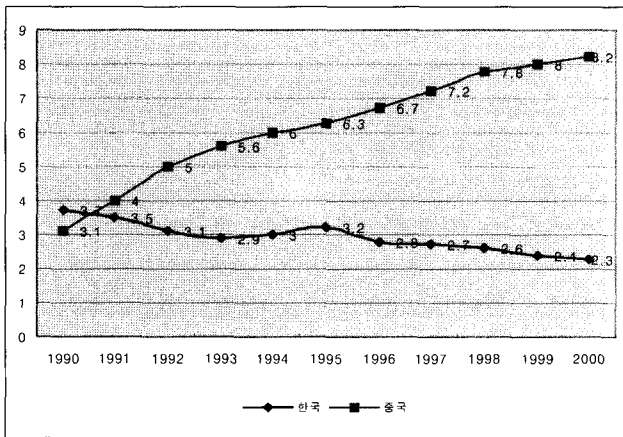
<표 51> 산업별 한·중 수출경합 및 보완관계 현황 및 전망

	한중 수출경합 관계		한중 보완 관계					
	현재	2005	대 중 수출		대 중 수입		대 중 투자	
			현재	2005	현재	2005	현재	2005
전자 (반도체 제외)	○	○	○	○	○	○	○	○
반도체	×	△	×	△	×	×	△	△
석유화학	×	△	○	○	×	×	○	△
섬유	○	○	○	○	○	○	○	△
신발	○	○	○	△	○	○	△	×
기계	○	○	△	○	△	○	△	△
자동차	×	×	×	△	×	△	△	△
조선	△	○	×	×	×	×	△	△
철강	○	○	○	○	○	○	△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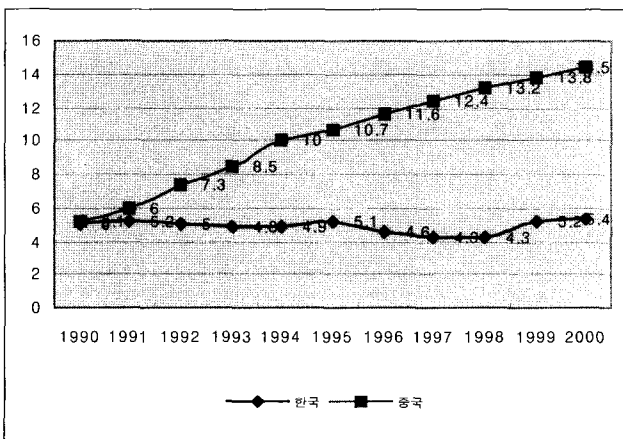
자료 : 산업자원부·산업연구원, 중국경제의 부상과 중국시장 활용방안, 2001. 11.

주 : ○ - 강한 경합관계 및 보완관계, △ - 약한 경합관계 및 보완관계, × - 거의 없는 경합관계 및 보완관계

1998년 기준으로 미국시장에서의 수출경합도지수는 0.34이고, 일본시장에서는 0.37이다. 이것은 양국의 수출주력상품이 다르다는 것을 의미한다.



<그림 2> 미국시장에서의 양국 시장 점유율



<그림 3> 일본시장에서의 양국 시장 점유율

그러나, 일본, 한국, 중국이 순차적으로 동일한 산업발전 패턴을 보이면서 공업화를 추진해 온 결과 한·중·일 3국간의 산업구조가 중첩되어 있어 3국간의 주력 수출상품간의 경쟁관계도 심화될 것이다. 향후 3국간 수출구조의 유사성이 더욱 확대될 것이며, 특히 전기·전자, 자동차, 화학산업에서 3국간의 경쟁이 더욱 치열해 질 것으로 보인다.

<그림 2>와 <그림 3>은 미국시장과 일본시장에서의 양국 시장 점유율을 보여주고 있다. 그림에서 양국 시장 점유율을 비교해보면, 2000년 미국시장에서의 중국 점유율이 한국 점유율보다 대략 3.6배이고, 2000년 일본시장에서의 중국 점유율은 한국 점유율의 약 2.7배정도 높다. 이것은 세계 시장에서 가격적인 측면과 급속도로 발전하는 기술력을 바탕으로 한 중국산 제품들이 경쟁력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다. 앞으로 국내 기업들이 WTO 가입으로 인한 중국의 변화에 민첩하게 대응하지 못한다면 세계 시장이나 중국시장에서 제품들의 경쟁력을 잃게 될 것이다.

2.3 주요 산업별 한중 수출경합도 및 보완도 추이

<표 3>은 산업별 한·중 수출경합 및 보완관계 현황 및 전망(2005년)에 관하여 도표화한 것이다. 먼저 경합정도를 살펴보면, 현재 한국의 전자, 섬유, 신발, 기계, 철강산업에서 경합도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고, 반면에 반도체, 석유화학, 자동차 산업에서는 경합도가 미미한 정도로 나타났다. 이것은 아직까지 중국이 한국과 경합을 벌일 만큼의 기술적 면에서 많이 뒤쳐져 있다는 것을 말한다. 하지만 2005년에는 자동차 산업을 제외한 나머지 산업에서 경합정도가 높아질 것으로 나타났다. 산업별 한·중 보완관계정도를 살펴보면, 대중 수출측면에서

는 조선, 신발 분야를 제외한 나머지 분야에서는 현재의 보완정도를 유지하던가, 보완정도가 높아질 것이다. 여기서 조선과 신발 분야에서는 경합정도가 높아짐에 따라 대중 수출측면의 보완정도가 낮아지는 것으로 나타난다. 대중 수입측면에서의 보완정도의 추세는 기계와 자동차 산업분야를 제외한 나머지 분야는 현 상태를 유지할 것으로 보인다. 대중 투자측면에서도 석유화학, 섬유 및 신발 산업 분야를 제외한 나머지 분야에서는 현 상태를 유지할 것으로 보인다.

2.4 중국의 WTO 가입으로 인한 한국의 주요 산업별 대응방안

중국의 WTO 가입을 계기로 중국의 시장개방이 확대되고 사업환경이 전반적으로 개선된다는 것은 우리에게 기회와 위협의 양면성이 주어지는 것이다. 환경의 개선에 의한 이점은 우리 나라에게만 주어지는 것이 아니라 모든 국가에게 동등하게 주어지는 여건이기 때문에 중국시장에서 치열한 경쟁이 예상된다. 기회를 활용하지 못하면 중·장기적으로 중국시장에서의 경쟁에서 도태되는 사태가 발생할 수 있다.

더욱더 우려되는 점은 10년 내 중국이 대부분의 주력 산업에서 한국을 추월할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중국과 한국의 주력산업 경쟁력 추이를 요약하면 <표 4>와 같다. 10년 후에 우리 나라가 대중국 경쟁력 우위 분야는 반도체 분야만이 있을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따라서 이에 따른 주요 산업별 대응방안 모색이 시급한 실정이다. 주요 산업별 대응방안은 아래와 같다[6,7,8,9,10,11,12,14,15].

1) 전자산업의 대응방안

일반가전 제품의 경우, 중국의 가격·비가격 경쟁력이 많이 향상되어 있고, 파나소닉, 소니 등 일본 유명메이커들의 지위가 위낙 확고해, 중국시장에서 우리의 시장 점유율 확대는 낙관할 수 없는 실정이다. 전자제품 분야에서는 중국보다 경쟁력 우위에 있는 제품, 경쟁력 확보 요구 제품, 경쟁력 열위에 있는 제품들로 나누어 대응방안을 모색하여야 한다. 경쟁력 우위에 있는 DVD, TFT-LCD

등의 디지털 가전분야에서는 지속적인 R&D 투자, 기술의 고급화에 의한 고급제품을 생산해야 할 것이고, 경쟁력 확보요구 제품인 IT산업 및 게임산업 제품 등의 엔터테인먼트(IT산업, 게임산업) 분야에서는 타 경쟁국가보다 먼저 시장을 선점하여 이에 따른 이익 확보 및 정보콘텐츠의 고급화의 전략이, 경쟁력 열위에 있는 제품인 TV, VTR 등의 재래가전 분야는 브랜드 이미지를 통한 시장 차별화 전략 및 중국시장의 현지투자를 강화해야 할 것이다.

2) 반도체산업의 대응방안

반도체 산업 세계 2위인 일본을 기준으로 한국(세계 3위)과 중국의 기술 경쟁력을 알아보면, 한국의 메모리 반도체 기술은 신기술 응용능력을 제외한 신제품개발기술, 생산기술 및 설계 기술 측면에서 일본을 능가하고 있으며, 신기술 응용능력도 2005년이면 대등한 수준, 2010년에는 한국의 기술 경쟁력이 일본을 능가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고, 중국의 메모리 반도체 기술은 한국과 10년 정도의 격차가 존재하고 있다. 비메모리 분야를 비교해보면, 현재 일본의 60%~70% 정도의 수준(기술수준, 생산기술수준)이며 2010년까지도 갭을 줄이지 못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한편 중국의 비메모리 분야는 일본의 40%~60%, 한국의 60%~80% 정도의 수준이다. 하지만 향후 10년간 중국이 한국을 추월하지 못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1997년의 경우 세계 반도체 시장은 전년 대비 4% 정도의 낮은 신장률을 보인 반면 중국의 반도체 시장은 18% 정도의 높은 신장률을 보였다. 한·중간 수출 경합관계가 거의 없고, 한국이 절대적인 우위를 차지하고 있다. 하지만 향후 중국은 세계 최대의 반도체 시장으로 부상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으므로 이에 따른 진출확대를 위한 투자·협력 방안을 모색해야 한다. 반도체 산업의 대응방안으로는 지속적인 신기술 개발 노력 강화, 반도체 장비 및 재료 부품업체의 대중국 시장 진출을 위한 시장개척단을 지속적으로 파견 및 합작투자, 기술협력을 희망하는 양국 업체간 정보교류를 활성화시키는 것을 들 수 있다.

<표 2> 중국과 한국의 주력산업 경쟁력 추이

예상년도	현 재	5년 내	10년 내	10년 후
경쟁력 우위	한국 < 중국	한국 = 중국	한국 = 중국	한국 > 중국
산업 분야	백색가전(중국 1위, 한국 5위) 섬유(의류, 직물) 신발(중국 1위) 농기계	합성 디지털가전 첨단공작기계 철강	정보통신 석유화학 조선 자동차	반도체
자료 : 유진석, 중국이 물러온다, CEO Information(제302호), 삼성경제연구소, 2001, 6.				

3) 석유화학산업의 대응방안

현재 중국에 대한 석유화학제품 수출에는 관세와 등기세가 전체 가격의 50% 정도를 차지하고 있다. 그러나 중국의 WTO 가입과 이를 통한 관세인하로 인해 대중국 수출은 크게 활발해 질 것으로 예상된다. 한·중 경협관계는 심각하지 않으며, 오히려 중국은 한국의 석유화학제품 최대수출시장이지만, 석유화학의 자급화를 위한 외국인 직접투자 유치를 강화하고 있어 한국의 대중국 투자에 많은 영향을 줄 가능성이 있고, 더 나아가 2008년에는 대중국 수출에 상당한 위축이 예상되고 대중국 수입이 증가할 가능성이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따라서, 중국 수요기업, 동종업계, 현지상사 등과 기술제공, 증설참여 등을 통한 현지기업과 동반자적 관계를 형성해야 할 것이고, 중국기업의 기술개발에 적극적으로 참여함으로써 수출시장 질서 유지 및 대중국 정보수집에 노력해야 할 것이다. 투자를 함에 있어서는 공동진출 및 지분참여에 의해 위험도를 줄이고, 세계 기업들의 투자 추이를 면밀히 파악해 볼 필요가 있다.

4) 섬유산업의 대응방안

섬유산업은 한·중 경협관계가 치열하지만 강한 보완관계를 가지고 있으며, 현재 대중국 투자 규모도 제조업 분야에서 2위를 차지하고 있다. 중국의 WTO 가입으로 인한 비관세 장벽(수입쿼터제, 수입제한 등)이 완화되면 수출증대 효과가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 화학섬유 및 섬유직물 분야에서는 수출이 크게 늘어날 것으로 보이며, 의류, 섬유사(화학사 제외)분야에서의 수입이 늘어날 것으로 예측된다. 중국시장의 확대 및 유지를 위해서는 중국 기술과의 차별화된 제품의 생산(신소재, 패션, 디자인, 염색가공 분야 등)에 주력해야 할 것이다.

화학섬유직물, 인조섬유직물 등의 경쟁력 우위에 있는 제품분야에서는 대중국 전략 수출상품 발굴 및 지원, 중국 중산층을 겨냥한 한국제품에 대한 고급 이미지 구축에 힘써야 할 것이고, 의료 부속 및 부분품, 의류분야 등의 경협관계에 있거나 열위에 있는 제품분야에서는 중국 소비자 수요특성에 신속히 대응할 수 있는 국내 중소기업간의 분업네트워크를 구축해야하고, 한류열풍을 고려한 제품의 홍보 및 마케팅 강화로 이미지를 제고시켜야 한다. 그리고 한·중 정부, 섬유단체 및 업체와의 간담회를 통한 협력관계를 모색하여야 한다.

5) 신발산업의 대응방안

수출시장에서 중국의 강력한 추격으로 국내 신발산업은 일부 특수한 분야를 제외하고는 전반적으로 경쟁력을 상실한 상태이다. 그러나 국내 신발류 수출의 1위 대상국은 중국이어서 수출에서 한·중 보완관계는 강하며,

수입 역시 대중국 수입 의존도가 67%에 달하고 있어 강한 양국간 보완관계를 보여주고 있다. 이러한 현상은 90년대 한국의 대중 투자 진출에 상당한 부분에서 기인하고 있다. 신발산업의 대응방안으로써는 차별화 전략 추진, 홍보 및 마케팅 활동 강화, 다품종 소량생산으로의 생산방식(린 방식) 전환을 들 수 있다. 즉, 특수화 중심의 생산전략, 환경친화적 기술을 활용한 제품과 소재, 부품의 고부가가치화 및 디자인에서의 차별화 전략 등을 들 수 있고, 해외유통시장 확보를 위해서 개척단 파견, 수출 상담회 개최 등의 홍보 및 마케팅 활동을 강화해 나가야 되며, 신발제품의 고부가가치화하기 위해서는 신발산업에 SCM을 도입하여 시스템을 신속·유연하게 함으로써 각각의 소비자 니즈(Needs)에 만족시켜야 한다.

6) 기계산업의 대응방안

중국정부의 기계공업에 대한 기술개발정책에 힘입어 기계공업은 빠른 발전 추세를 나타내고 있으나 아직도 선진국과는 기술격차가 존재한다. 중국 주요 분야 기계공업의 기술수준은 대체로 한국의 55~80% 수준인 것으로 추정된다. 즉, 신제품 개발력, 신기술 응용력, 생산기술 측면에서 중국보다 다소 우위에 있는 한국산 기계제품에 대한 수요 증대 및 중국산 기계류의 기술 향상으로 양국간에는 산업 내 교역이 활발해지면서 교역량도 증가될 것으로 전망된다. 중국의 WTO 가입에 따른 첨단기술 및 자본의 집중유입으로 인한 중국의 범용 기계 분야 발전으로 인하여 세계시장에서 우리 나라와의 기계의 정밀도의 차이가 없어짐으로써, 국제시장에서의 경쟁이 치열해 질 것으로 예상되고 양국간 경쟁은 더욱 심화될 전망이다. 이에 따른 대응방안으로서는 목표 마케팅과 지역특화 전략 추진, 기술 및 마케팅에 대한 현지인력육성을 위한 중국시장에 대한 조사강화와 적극적인 전략이 필요하다. 직접투자확대 등 국내기계부품 산업의 현지화 전략 추진 및 중국기업과의 제휴확대 및 수평적, 수직적 분업을 강화하여 대중 직접투자 및 협력을 확대시켜나가야 할 것이며, 기계산업의 고부가가치 기술개발, 자원개발과 연계한 발전소 건설 프로젝트 수주 활동, 플랜트 수주활동 등을 강화하여 성장잠재력이 큰 중국의 거대 발전기자재 시장 진출에 대비해야 할 것이다.

7) 자동차산업의 대응방안

중국의 WTO 가입으로, 2005년까지 자동차에 대한 관세를 인하(현행 80~100%에서 25%로, 부품에 대한 관세율은 10%로 인하하기로 함)와 중국의 경제성장에 따른 신흥 부유층의 급격한 증가로 인하여 우리 나라의 대중국 수출이 늘어날 것으로 예상된다. 세계적인 기술력을

가진 일본의 자동차 산업 기술력을 기준으로 한국과 중국의 향후 경쟁력을 알아보면[2], 현재의 한국 자동차 경쟁력(완성차 부문)은 일본의 83.8% 수준이며, 향후 경쟁력이 강화되어 2005년이면 일본의 90%를 상회하며, 2010년이면 일본의 97.8%로 거의 일본 수준에 근접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고, 중국 자동차 경쟁력(완성차 부문)은 현재 일본의 50% 수준에 불과하지만, 기술 및 품질 수준의 개선과 낮은 가격수준으로 인해 2010년에는 일본의 81.3%까지 도달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한국의 자동차 부품의 경쟁력은 현재 일본의 88.3%수준이며, 2005년이면 90%, 2010년에는 92.5%에 도달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고, 중국의 자동차 부품 경쟁력은 현재 일본의 71.7%, 2005년에 가셔도 한국 수준에 도달하지 못하겠지만, 2010년이 되면 한국 수준을 앞지르는 경쟁력을 확보할 것이라는 전망도 나오고 있다. 중국 시장에서의 한·중 경합관계는 거의 없으며, 중국 자동차 산업의 양적 성장에 비해 질적 낙후로 인해 향후 5년 후에도 중국의 자동차 수출이 본격화하기는 어려울 것으로 전망한다. 따라서 완성차 부문에서의 대응방안으로는 현지업체와의 합작 조립생산 확대 및 중국 승용차 사업 투자를 확대를 위한 중국 정부로부터의 사업 허가 획득에 주력해야 할 것이고, 지속적인 R&D투자로 인한 첨단기술개발에 힘써야 하며, 마케팅 전략과 판매, 서비스망 확보, 브랜드 이미지 구축을 위한 전략이 필요하며, 아시아지역 생산거점화를 위한 자동차산업 인프라를 구축하여야 할 것이다. 부품산업 부문에서는 중국의 부품 자립도가 낮다는 것에 안주해서는 안된다. 왜냐하면 세계 유수의 선진 부품업체들과 경쟁이 심화될 것이므로 R&D로 인한 기술력보유가 필요하다.

8) 조선산업의 대응방안

수출시장에서 대중국 우위산업이다. 현재 및 향후 5년간 한·중 간 수출 및 수입은 미미한 수준일 것으로 예상되어진다. 하지만, 조선시설의 확충이 완료되는 2005년 이후에는 유럽시장 등에서 경쟁이 심화될 것으로 전망된다. 이에 따라, IT 접목을 통한 생산성 및 기술력 제고, 고부가가치선 기술 및 핵심 기자재 개발, 대중국 조선기술 제공 및 유출을 방지해야 하며, 공정 경쟁을 유도하기 위해 국제협상에 중국이 참여하도록 노력해야 한다.

9) 철강산업의 대응방안

한국의 대중국 수출품목 가운데에는 스테인리스, 냉연, 강판, 강대 및 아연도 강판 등 비교적 고부가가치 제품이 높은 비중을 차지하며, 대중국 수입품목 가운데에는 열연 강판, 중후판 등 저부가가치 제품이 높은 비

중을 차지할 것으로 전망된다. 즉, 대중국 수출에서는 고부가가치 제품, 대중국 수입에서는 중저가 제품 중심으로 보완적 관계를 보이고 있다. 중국의 10차 5개년 계획 추진 및 서부 대개발 프로젝트 추진에 따른 고급 강재 수요가 증대할 것이므로 대중국 마케팅 활동이 강화되어야 하고, 신기술 및 고부가가치 신제품 개발 및 대중국 철강무역 흑자확대로 인한 중국과의 통상마찰 해소를 위한 양국간 협력을 확대 시켜나아가야 한다.

3. 결 론

대중국 수출은 1999년에 138억 6,500만 달러를 기록한 데 이어 2000년 1~11월중에는 전년동기 대비 38.3%나 증가한 169억 3,200만 달러의 실적을 보이고 있다. 한국의 무역흑자 대상국 순위에 있어서도 중국은 2000년 1~11월 현재, 홍콩과 미국에 이어 제3위에 달할 정도로 큰 비중을 차지하는 한국의 제3대 수출대상국이다. 이런 중국이 2001년 12월 11일부로 세계무역기구(WTO) 정식 회원국이 됨으로써 중국의 WTO 가입으로 중국의 한국 시장개방압력이 증가할 것이고, 주요 수출시장에서도 경쟁이 치열해 질 것이다. 우리의 주력시장이었던 섬유, 신발, 의류 등 노동집약적 산업뿐만 아니라 전통적으로 우리가 경쟁우위를 보였던 기계, 전기, 전자 분야에서 중국의 경쟁력이 크게 강화되고 있다. 우리의 주력 수출 시장에서 중국에 대한 경쟁우위를 지켜 나가기 위해서는 산업구조를 정보와 기술 집약적 산업 위주로 고도화하려는 노력이 필요하다. 중국의 WTO 가입으로 인한 중국이 WTO의 회원국이 됨으로써 WTO 회원국은 중국이 선진시장경제체제로의 경제체제변환을 강요할 것이고, 이로 인한 시장개방으로 자국기업 시장독점혜택이 없어지고, 비관세 장벽이 없어짐으로써 세계시장으로 무한가능성을 가진 중국시장에 대한 효율적 대응을 위한 우리 기업들이 앞으로 나아가야 할 방향은 주요산업별 대응방안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중국에 기술유입에 따른 제품들의 경쟁력이 점차 증가하는 추세를 보이고 있다. 이에 따라, 국내 주요 산업들은 지속적인 R&D 투자로 인한 기술 고급화로 차별화된 제품을 생산하여야 할 것이고, 홍보 및 마케팅 활동 등을 강화하여, 세계 경쟁업체들보다 유리한 시장선점 입지를 굳혀서, 중국의 10차 5개년 계획과 서부 대개발 프로젝트와 관계되는 즉, 진행 과정 및 완료 후의 인프라 구축에 따른 수익 원천을 점유하는데 국내주요산업들의 전략이 시급히 수립되어야 할 것이다. 각각의 산업분야들의 특성은 다르지만, 산업별 대응방안을 토대로 일반화시켜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중국을 값싼 노동력을 이용하여 제품을 만들어 제3국으로 수출하는 패턴을 우리 나라 기업들이 가져왔으나, 앞으로는 중국을 내수시장으로써의 관점을 가져야 할 것이다. 둘째, 현재 우리 나라 기업들의 중국 진출 지역적 분포를 보면, 원·부자재 수입의 50%가 우리 나라에서 수입된다는 점, 정보수집비용 절감, 제3국 수출의 효율성 때문에 발해만, 동북3성 등 해안지역 위주로 분포되어있다. 하지만 서부대개발 계획에 따른 서부지역의 인프라가 구축, 부존자원의 풍부와 중앙아시아와 인도차이나반도로의 무역거점화하기 위한 지리적 중요성을 고려해본다면 우리기업들이 서부지역으로의 투자도 감안해볼 필요가 있다. 셋째, 국내산업을 노동집약적 산업에서 지식·정보·기술 집약적인 산업으로 개편해야 한다. 향후 2050년을 전망하기를 중국에 대한 한국 주요 산업 경쟁력이 거의 모든 분야에서 경쟁력이 열위에 있을 것이라고 전망하고 있다. 이를 극복하기 위해서 무엇보다 중요하게 고려되어야 할 사항은 R&D 투자로 인한 기존의 산업체제를 지식·정보·기술 집약적 산업으로 변모하여야 할 것이다. 넷째, 중국의 WTO 가입으로 인하여 중국시장이 세계선진기업들이 경쟁하는 무한경쟁 시장으로 변모할 것이다. 지속적인 연구개발로 인한 기술의 고도화도 중요하지만 기업의 마케팅 전략도 보다 중요하게 부각되고 있다. 기업의 브랜드 이미지 제고 활동, 제품 서비스망 구축 등의 차별화 전략이 필요하다.

다섯째, 비용과 위험을 감소시키기 위한 일환으로 현지기업과의 협력을 활발히 하여야 한다. 한국기업의 대 중국 진출에 있어서 비용과 위험요소를 줄이기 위해 기업신설 및 독자투자형태보다는 인수·합병방식으로 접근하여 단계적으로 고도화하여야 하고, 대중수출을 증가시키기 위하여 중국 수입업체와의 협력방안도 모색하여야 한다. 여섯째, 최근 중국에서 한류열풍에 의한 한국에 대한 인식이 좋아진 것은 자명한 사실이다. 따라서, 한국기업은 이러한 기회를 이용하여 중국시장에서 경쟁력을 확보하고, 유리한 위치를 선점할 수 있는 정책마련이 시급하다.

참고문헌

[1]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홍콩한국무역관), “WTO 중국 시장을 꼭 잡아라 - 홍콩·상하이·싱가포르 활용을 통해”, 2001.
 [2] 사공목; “한·중·일 산업기술 경쟁력 - 자동차와 반도체 중심으로-”, KOTEF 저널, 2002.
 [3] 신태용 외 다수; “중국경제의 부상과 중국시장 활용방안”, 산업자원부·산업연구원, 2001.
 [4] 신태용; “중국경제의 국제적 부상과 중장기 전망”,

중국경제의 부상과 한국 산업의 대응과제 세미나 자료”, 2001.
 [5] 송유철, 정인교; “중국의 WTO 가입이 한국경제에 미치는 영향 및 대응방안”, 세계경제, 2001.
 [6] 양문수, 서봉교; “중국 WTO 가입이 국내산업에 미치는 영향 - 가전·화학·통신 산업을 중심으로”, LG경제연구원, 2001.
 [7] 양평섭; “중국의 WTO 가입 이후 산업별 개방 계획과 그 영향”, 대외경제정책연구원, 2000.
 [8] 유진석; “중국이 몰려온다”, CEO Information(제302호), 삼성경제연구소, 2001.
 [9] 이권재; “중국의 WTO 가입에 따른 한국기업의 인식행태에 관한 연구”, 석사학위논문, 한양대학교 경영대학원, 2001.
 [10] 이경혜; “중국의 WTO 가입에 따른 한국통상정책 방향”, 석사학위논문, 동의대학교, 2001.
 [11] 이시웅; “중국의 WTO 가입이 한국경제에 미치는 영향과 대응방안에 관한 연구: 무역 및 투자를 중심으로”, 석사학위논문, 동아대학교 경영대학원, 2001.
 [12] 임성희; “중국의 WTO 가입이 우리나라 수출입에 미칠 영향에 관한 연구”, 석사학위논문, 동아대학교 경영대학원, 2000.
 [13] 전대천, 오승철; “중국, 대만의 WTO 가입과 우리경제에 미치는 영향”, 산업자원부 공보관실자료, 2001.
 [14] 중국경제의 부상과 한국산업의 대응과제 세미나 자료, 2001. 11.
 [15] 황지영; “중국의 WTO 가입이 우리나라 수출입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연구”, 석사학위논문, 동아대학교, 2001.
 [16] Guanzhong james WEN; “New frontier of economic globalization - The significnace of China's accession to WTO”, China Economic Review, 11 : pp. 432-436, 2000.
 [17] Guy Shaojia LIU. et al; “Chian's new horizon -Challenges and opportunities from WTO membership”, China Economic Review, 12 : pp. 103-106, 2001.
 [18] Xiaokai YANG; “China's entry to the WTO”, China Economic Review, 11 : pp. 437-442, 2000.
 [19] Young-Rok CHEONG; “The impact of China's entrance to the WTO on neighboring east Asian economies”, China Economic Review, 11 : pp. 419-422, 2000.